http://doi.org/10.14347/kadt.2019.41.3.233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나정숙
진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Learning 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Jung-Sook Nah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Jinj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earn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out career-preparation behavior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Methods: Using the questionnaire,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in Gyeongnam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t A and B college for one month from May 15, 2019 through June 15, 2019, and finally 204 students were surveyed for Self-esteem,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Internal 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preparation behavior.

Results: Self-esteem among students has been shown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by increasing the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has only a direct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self-determination and internal control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were found to be variables that have a common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college life adaptation gives direct positive effect to self-directed learning, but indirect effect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was found to be stronger than direct effect 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and the career-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was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Conclusion: The changes in college restructuring and various policies also suggest that students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instill certainty about their major's vision and career path within the college rather than deciding their future through extreme measures such as academic secession at a time when anxiety and uncertainty about their career is strong.

Key words: Self-esteem, Self-determination, Internal 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Career-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Name	나 정 숙	Tel.	055-743-3010	E-mail	nahjs8133@hanmail.net
	Address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Received	2019. 7. 25	Revised	2019. 9. 2	Accepted	2019. 9. 10

I. 서 론

현재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정책목표와 다르게 위기대학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학생들보다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현상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언급하고 있다(Chung et al, 2017).

그러나 치기공과의 경우는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1학년 때 학과에 대한 비전 제시와 치과기공사로서의 지도교수의 인성교육시간을 만들고, 2학년에는 다양한 보철물 전공교과목별로 특성 상담과 임상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무별 특성상담을 통해 국가시험대비 취업교육상담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함을 제시하였다(Kwon, 2013). 치기공과 학생들의 중도탈락현상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분위기와 취업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배양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이다.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대학에 대한 불만,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 재정, 대학환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Kwon, 2013), 그 외 행정지원체계(Park, 2019), 대학만족도(Lim & Kwak, 2011),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Kwon, 2010) 등을 언급하였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한 학생들의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중도탈락과는 현재 대학의 현상은 다소 다른 패턴인 상황으로(Kim, 2006) 2017년 현재 13개 대학 중도탈락비율이 10%를 넘어 이러한 현상은 치기공과 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도 유사한 현상이 대두되어 관련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ung et al, 2017).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Sea & Chung, 2015; Lee et al, 2019; Choi & Lee, 2019; Park, 2018; Kim, 2018, Kim et al, 2018; Song et al, 2018; Kim, 2017; Kim & Lim, 2016; Kim et al, 2015; Park & Choi, 2015; Sea & Chung, 2015) 최근 전공마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지는 현상이었다.

자기존중감이라고도 불리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함 사람임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하고 있다(Freud, 1914; Maslow, 1970; Gecas, 1972; Rosenberg, 1971; Newman & Newman, 1984). 199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아존중감 운동은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도전과 만났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으며, 행복할 가치가 있다고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Craig, 2006).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에드워드 데시와 리차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인 자기결정성은 자신에게 흥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며, 자기 결정성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eon & Oh, 2019).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Park et al, 2017; Cho et al, 2018; Kim, 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Chang, 2005),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Park et al, 2017), 구체적인 자기효능감을 구별하지 않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Ko & Sim, 2015; Kim & Kim, 2018) 등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기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연구는 다소 존재하였다(Oh & Choi, 2018).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일컫는 것으로(Bandura, 1977), 학생들이 협력과 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조절과 자신감 및 직접 학습으로 인한 만족감과 성취감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시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Oh & Choi, 2018).

내적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변인으로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로 구분한다. 내적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사진의 운명에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기술과 노력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며, 외적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그들 자신 이외의 사람의 힘이 그들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으며 운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고 믿는다(Kim, 2000). 내적통제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am, 2009), 이 요인을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연구는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자신의 불안함, 대인관계들을 원만하게 조절하기 위한 변인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들은 내적통제성도 충분히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생활적응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이끌어내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환경에 따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에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등장하는 플립러닝기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진 사이버대학이나 웹기반학습,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간 연구는 전공선택동기(Ko & Ko, 2019; Kim et al, 2016), 멘토링(Uhm et al, 2016), e-러닝이나 사이버대학 관련 학습(Yun, 2018)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연구는 진로결정(Choi & Mo, 2018; Yang, 2018; Park & Lee, 2013; Kang, 2004)과 진로장벽(Park & Kim, 2009), 전공전환(Sea & Yun, 2018), 동아리활동(Yoon, 2013) 등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이거나 새로운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었다.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연구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Park, 2015; Lee & Kim, 2018).

그러나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드물고, 현재 중도탈락이나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보이는 학생들의 문제들을 파악하기에는 학생들의 내면적인 부분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하여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을 Fig. 1과 같다.

가설 1.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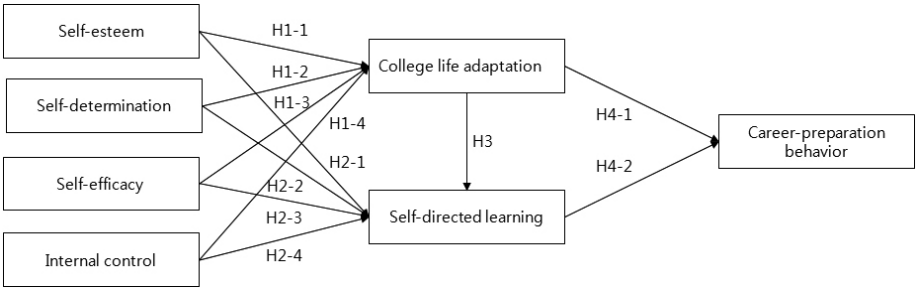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경남지역 치기공과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 한 달 동안 자기기입법에 의해 A, B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부실한 응답을 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학년 78명, 2학년 72명, 3학년 54명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이는 66.2%가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거주형태는 자택(67.2%)이 가장 많으며,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도 21.6%로 높았다. 또한 가정생활수준은 66.7%가 보통이며, 하 수준인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Table 1).

학생들의 취업과 전공,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81.4%는 취업을 하길 원하며, 취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목적,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러한 고민을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24.5%이며, 적극적으로 주변인들과 고민하고 공유하는 경우는 75.5%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전공을 성적과 부모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가 많으며 전공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경우도 23%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자료처리방법

모든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PSS 22.0 for

Table 1. Response distribu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04)

Characteristics	Classify	Frequency	Ratio(%)	Characteristics	Classif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35	66.2	Grade	First	78	38.2
	Female	69	33.8		Second	72	35.3
Residence type	Home	137	67.2		Third	54	26.5
	Lodgings / Traces	44	21.6	Economic level	Low	44	21.6
	Relative / Acquaintance	6	2.9		Middle	136	66.7
	Dormitory	17	8.3		High	24	11.8

Table 2. Perception of employment and career

Factor	Classify	Frequency	Ratio(%)	Factor	Classify	Frequency	Ratio(%)
Career after graduation	Employment	166	81.4	Major selection opportunity	Parental suggest	42	20.6
	Business	18	8.8		Job transfer	36	17.6
	Enter school	20	9.8		Aptitude test	35	17.2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Pure ability	60	29.4		Grades	49	24.0
	personal awareness goal	124	60.8		Teacher's recommendation	13	6.4
	Home background	20	9.8		Friend's recommendation	7	3.4
Degree of employment worry	A lot	46	22.5		Acquaintance recommendation	22	10.8
	Many	79	38.7	Major entertainment	Very interest	23	11.3
	Usually	69	33.8		Interest	59	28.9
	Few	8	3.9		Ordinary	75	36.6
	Very few	2	1.0		Small	34	16.7
Resolving employment worry	Consultation with neighbors	154	75.5		Verry small	13	6.4
	Worry alone	50	24.5	Total		204	100.0

Windows, SPSS Inc., Illinois, U.S.A.),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 측정검사지의 확인적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분석 및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고, 개념신뢰도와 AVE(평균분산추출)을 계산하였으며,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상관계수값과 AVE값의 제곱근값을 산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가설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직, 간접효과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α=.05이다.

Ⅲ. 결 과

1. 검사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모든 변인은 7점 측도로 측정되었으며, 기술통계량은 자아존중감은 평균 4.69(최소 1.60~최대 7.00), 자기결정성은 평균 3.59(최소 1.00~ 최대 5.92), 자기효능감은 평균 4.39(최소 1.00~ 최대 7.00), 내적통제성은 평균 4.53(최소 3.25~최대 6.70),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4.36(최소 2.10~ 최대 6.60), 자기주도학습은 평균 4.26(최소 1.00~ 최대 7.00),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70(최소 1.11~최대 7.00)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통계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기공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기결정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 달리 매우 낮은 대상자들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별 신뢰도는 최소 0.824에서 최대 0.924로 0.6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검사지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최소 0.880, AVE는 최소 0.709로 나타나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였으며, AVE는 0.5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타당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변인간의 상관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제곱값을 산출하여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제곱값은 AVE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간의 상관성은 0.7이하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and reliability and feasibility for each of the variables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alpha	Concept reliability	AVE
Self-esteem	4.69	1.07	10	.914	.980	.836
Self-determination	3.59	0.83	24	.915	.980	.709
Self-effiicacy	4.39	1.16	4	.886	.972	.897
Internal control	4.53	0.66	20	.824	.987	.805
College life adaptation	4.36	0.90	20	.848	.965	.774
Self-directed learning	4.26	0.75	15	.924	.880	.874
Career-preparation behavior	3.70	0.99	9	.857	.963	.74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Feasibility of Discrimination

Variable	(1)	(2)	(3)	(4)	(5)	(6)	(7)
(1) Self-esteem	***.836***	.002	.316	.229	.336	.219	.059
(2) Self-determination	.047	***.709***	.098	.008	.037	.152	.228
(3) Self-effiicacy	.562***	.313***	***.897***	.190	.225	.408	.126
(4) Internal control	.479***	-.092	.436***	***.805***	.150	.166	.003
(5) College life adaptation	.580***	.192**	.474***	.387***	***.774***	.255	.089
(6) Self-directed learning	.468***	.390***	.639***	.407***	.505***	***.874***	.166
(7) Career-preparation behavior	.243***	.477***	.355***	.052	.298***	.408***	***.746***

Diagonal line: AVE, Diagonal line below: Correlation coefficient, Diagonal line above: Correlation coefficient square
** p<.01, *** p<.001

2. 가설검정 결과

경로분석 결과, 가설 1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매개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은 독립변수 중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자아존중감(표준화경로계수=0.439, p<.001), 자기결정성(표준화경로계수=0.145, p<.05), 내적통제성(표준화경로계수=0.137, p<.05)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에서는 1-3을 제외한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매개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기결정성(표준화경로계수=0.255, p<.001), 자기효능감(표준화경로계수=0.362, p<.001), 내적통제성(표준화경로계수=0.172, p<.01)의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에서는 가설 2-1를 제외한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인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대학생활적응(표준화경로계수=0.180, p<.01)은 자기주도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인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표준화경로계수=0.346, p<.001)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에서는 가설 4-1은 기각되었고 가설 4-2는 채택되었다(Table 5).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s through path analysis

			Unstandardized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p	Label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esteem	0.308	0.049	0.439	6.276***	0.000	Hypothesis 1-1 adop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determination	0.132	0.055	0.145	2.422*	0.015	Hypothesis 1-2 adop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effiicacy	0.079	0.048	0.122	1.651	0.099	Hypothesis 1-3 reje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Internal control	0.156	0.075	0.137	2.088*	0.037	Hypothesis 1-4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esteem	0.055	0.057	0.066	0.972	0.331	Hypothesis 2-1 re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determination	0.277	0.059	0.255	4.718***	0.000	Hypothesis 2-2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effiicacy	0.280	0.051	0.362	5.485***	0.000	Hypothesis 2-3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Internal control	0.233	0.080	0.172	2.909**	0.004	Hypothesis 2-4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College life adaptation	0.215	0.074	0.180	2.896**	0.004	Hypothesis 3 adopti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	College life adaptation	0.162	0.097	0.123	1.668	0.095	Hypothesis 4-1 rejecti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	Self-directed learning	0.383	0.082	0.346	4.691***	0.000	Hypothesis 4-2 adoption

*p<.05,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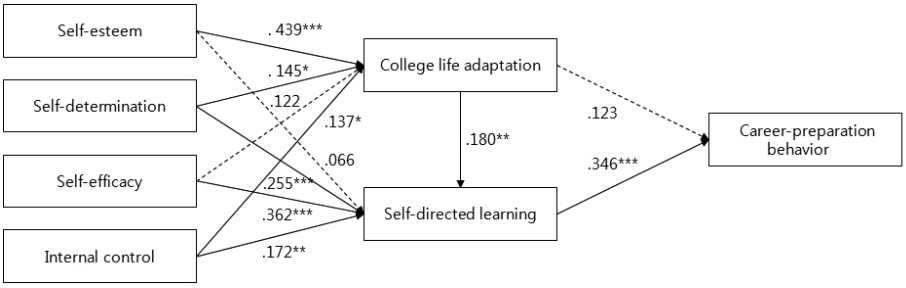

Figure 2.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을 작용하지만 자기주도학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자기주도학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의 직 · 간접효과

결과를 중심으로 각 변인간의 직、간접효과수준을 알아보았다. 최대우도법에 의해 95%수준에서 부트스트랩을 통하여 각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 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독립변인들은 모두 직접적인 효과만 존재하며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직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독립변인과 대학생활적응 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1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each excuse

		Self-esteem	Self-determination	Self-effiicacy	Internal 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College life adaptation	Total	0.439**	0.145*	0.122	0.137*	–	–
	Direct	0.439**	0.145*	0.122	0.137*	–	–
	Indirect	–	–	–	–	–	–
Self-directed learning	Total	0.145*	0.281**	0.384**	0.196**	0.180**	–
	Direct	0.066	0.255**	0.362**	0.172*	0.180**	–
	Indirect	0.079**	0.026*	0.022	0.025*	–	–
Career-preparation behavior	Total	0.104**	0.115**	0.148**	0.085**	0.185**	0.346**
	Direct	–	–	–	–	0.123	0.346**
	Indirect	0.104**	0.115**	0.148**	0.085**	0.062**	–

*p<.05, ** p<.01, ***p<.001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Sea & Chung(201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일컫는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자기결정성은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대활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의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이나 자기주도학습보다는 진로준비행동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한바 있다(Kim, 2017; Lee, 2010; So, 2011).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적통제성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2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5), Park & Lee(2018), Hahn & Kim(2006)의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자아존중감 변인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가설3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는 직접적인 긍정효과를 주지만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지못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기공과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들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활적응력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은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며,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통한 순차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교양과목과 체험활동,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과 결단력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Kwon(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인 긍정효과를 일으키고 자신을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만 치기공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며, 2학년부터 진행되는 임상실습과 같은 전문적인 전공과목 학습에 대해서도 팀별 협력이나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간의 상호협조적인 유대관계가 구성되어야만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향상되며,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함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구조조정과 다양한 정책의 변화에 학생들 또한 불안함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점에 학업의 중도탈락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내에서 전공의 비전과 진로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는 직접적인 긍정효과를 주지만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준비행동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1977.

Chang K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Counseling, 6(1), 185-196, 2005.

Cheon MK, Oh JU.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a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risisonomy, 15(3), 71-81, 2019.

Cho EM, Park HI, Chean SM.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Freshmen'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Locality and Globality, 42(1), 175-193, 2018.

Choi BR, Mo H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939-955, 2018.

Choi YS, Lee EJ.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aptability to university on career identity among male nursing students. Artistic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Journal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alogy, 9(3), 583-593, 2019.

Chung JY, Seon MS, Kim HJ.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Crisis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4), 47-72, 2017.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standard ed. 1957.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Gecas V.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 332-345, 1972.

Hahn JS, Kim SH. Discussion on the Research to Examine Relations Among Learner 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in Web-bas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2(4), 29-5, 2006.

Kim HJ. The Influence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 Majored in Dance and Professor on Their Self-esteem and Department Adaptation. KAODANCE, 35(2), 1-12, 2018.

Kim JH, Lim JH. Male Nursing Students Majoring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Adapt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Artistic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Journal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 91-100, 2016.

Kim JS. The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 - Esteem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9(2), 209-219, 2000.

Kim JS.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141-166, 2017.

Kim MJ.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Attribution style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4(2), 139-154, 2011.

Kim SG, Oh, SJ, Choi MS, Hong SH, Lee JC.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nchi and Stres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Artistic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Journal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49-658, 2018.

Kim SY.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33(4), 33-62, 2006.

Kim SY.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Adaptation, Self-Esteem and Self-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03-111, 2017.

Kim YJ, Kim HY.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8(2), 51-76, 2018.

Kim YJ, Kim YY, Lee SM.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9-47, 2015.

Kim YJ, Yoo HN, Park MJ.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KAIS, 17(10), 261-270, 2016.

Ko GP, Ko JL.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of University Freshman' s Major Choice Ground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425-458, 2019.

Ko GP, Sim MY,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 of KoCon, a, 15(6), 379-39, 2015.

Kwon HJ. The Effects of Personal, Institutional, Social Variables on Determin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Intention. Jour, of KoCon, a, 10(3), 404-412, 2010.

Kwon SS.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 in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of D College. J Kor Aca Den Tec, 35(3), 243-257, 2013.

Lee JH, Oh JH, Kim HK.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bility on the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CS, 36(1), 362-370, 2019.

Lee J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2010.

Lee SS, Kim JK. The Effects of self leadership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college students with catering and cooking major. Journal of Management Research, 82, 1147-1169, 2018.

Lim E, Kwak YY.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30(2), 231-248, 2011.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70.

Nam JH.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n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hletic Stress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to the Department of Martial Arts of University Students. JKAMA, 11(1), 151-164, 2009.

Newman BM, Newman PR ()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3rd ed. The Dorsey Press, Homewood, IL, 1984.

Oh EY, Choi YS. Effect of the Simulation-based Cooperation Program on Self-efficac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301-311, 2018.

Park EH, Choi ES.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28(1), 57-79, 2015.

Park GJ. Exploration on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Dropout. Global Creative Leader, 9(2), 95-115, 2019.

Park HI, Chean SM, Cho E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ollege Freshm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4), 1-21, 2017.

Park HK, Lee JM.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ing Outcomes in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4(1), 147-175, 2018.

Park JH, Kim HS.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1), 325-349, 2009.

Park JY.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Institute Educational Science, 21, 131–158, 2015.

Park SH.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Self-Efficiency, Self-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apacity by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4), 115–136, 2015.

Park SJ.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 KoCo, a, 18(7), 302–312, 2018.

Park SY, Lee DH.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32(1), 23–38, 2013.

Rosenberg M. Simon RG.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D.C., Rosmonography Series, 1–10, 1971.

Sea ES, Chung KA.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Major,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Self-Esteem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Optic Science at a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KJVS, 17(3), 213–225, 2015.

Sea HJ, Yun MH.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fore and After Major Transitions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ch, 28(3), 325–349, 2018.

So Y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30(2), 117–134, 2011.

Song YS, Lee HS, Lim CH.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37(6), 103–111, 2018.

Uhm CY, Sung WK, Ryue SH. Study on Effects of Tutoring in a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4), 1017–1040, 2016.

Yang ES. The Effect of College Sport League Participation on School Adaptation, Career Building Efficacy and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7(3), 45–59, 2018.

Yoon YM. The relationship among extracurricular club activities with adaptation to campus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8(2), 21–30, 2013.

Yun HS.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Academic Adjustment. Lifelong Education Center of Soongsil University- HRD Reseach, 14(4), 85–109, 2018.